

# 대학생 학자금 대출자의 노동시장 이행 분석

송창용<sup>1)</sup> · 손유미<sup>2)</sup>

## 요약

본 연구에서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한국교육고용패널(KEEP) 7차 데이터를 활용하여 졸업생중 학자금 대출자의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을 분석하였다. 지금까지 학자금 대출에 대한 연구들이 대부분 제도적 접근을 취했다면, 이 논문은 실제 제도를 이용하는 수요자의 관점에서 학자금 대출 여부가 노동시장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자 시도하였다.

학자금대출자와 미대출자의 노동시장 이행 실태를 비교 분석한 결과, 4년제 여자 졸업생들 중에서 대출자가 미대출자보다 경제활동참여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경제적인 여유를 갖고 있는 여학생의 경우 더 좋은 직장에 취업하기 위해 취업준비나 시험 준비 등을 통해 노동시장 참여를 유보하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둘째, 2년제 남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취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경우는 직장을 포기하고 자영업으로 이행하는 선택을 할 경우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셋째, 대출을 받은 학생들의 경우, 가정의 경제적 배경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을 것이며 이는 다시 노동시장에서의 종사상의 지위를 결정지을 가능성이 큼을 시사하고 있다.

넷째, 학자금 대출 요인이 취업여부를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대출여부보다는 대출자의 통제되지 않는 개인적 특성, 부모의 경제적 지위 등이 노동시장 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I. 서론

각국의 정부는 고등교육 투자와 확대를 통해 증가하는 고등교육에 대한 사회적 수요에 부응해왔다. 고등교육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 교육투자의 증대가 요구되고 있지만 국가 예산의 제약으로 많은 나라에서 학생 수의 증가에 따른 정부 예산의 추가지원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과 교육투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많은 나라들이 정부의 재정적 부담과 교육투자의 효율성 문제를 동시에 고려하면서 고등교육의 기회 균등을 실현하려는 중요한 정책수단의 하나로써 학자금 대출제도를 도입하고 있다(김안나 외, 2005). 학자금 대출제도가 정책적으로 중요시하는 이유는 학자금 대출을 통해 대학 등록금 인

1)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

2)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

상에 따른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교육비의 회수율을 높임으로써 고등교육의 기회를 확대하여 궁극적으로 고등교육에 대한 사회적 수요 증가에 대응하는데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등교육투자는 정부지원에 의한 공적 지원보다는 민간에 의한 사적지원, 즉 대학 등록금에 대한 의존비율이 높다. OECD 교육지표(2011)에 따르면, 우리나라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는 대부분 민간부문에 의하여 이뤄지고 있으며, 총 투자의 약 22.3%만이 공공부문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2008년도 기준 GDP 대비 0.6% 수준으로 OECD 평균인 1%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사적의존도가 높다보니 물가상승률을 상회하는 대학등록금의 인상률은 학부모, 학생의 경제적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sup>3)</sup>. 2000년 국립대 등록금은 219만에서 2011년에는 440만원으로, 지난 11년간 국립대 인상률은 70%였고, 사립대 인상률도 2000년에 451만원에서 776만원으로써 55.8%였다. 이와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 37.2%에 비해 1.7배 이상 상승한 것이다(반상진, 2011).

정부 역시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학자금 용자제도는 학생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과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부담을 동시에 경감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으로 간주하여 지속적으로 제도의 변화를 시도하여오고 있다. 학자금 지원제도는 1961년 도입이후 장학금 중심의 지원제도에서 대출기반 정책으로 전환되어 오고 있다. 최근에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2010.1.22 법률 제 9935호)을 제정, “소득연동형 대출(Income Contingent Loan)” 제도를 도입하였다. 대출자를 중심으로 원리금 상환 시작을 대출자의 일정 소득 발생 시점과 연계시켜 실질적인 상환능력을 기준으로 시행한다는 데에 특징이 있다. 현재의 소득이나 가정형편이 아니라 미래의 소득에 연계시켜 원리금을 상환케 하는 제도이다(하연섭 외, 2009).

이러한 학자금 용자의 정책적 관심에 비하여 이 분야에 대한 국내 학술연구는 양적으로 매우 적으며 연구방법도 영역도 한정되어 있는 형편이다(김안나외, 2004; 남수경외, 2007; 채재은, 2005; 김지하외, 2010; 오세안, 2010). 본고는 학자금 대출제도라는 구조속에서 개인 행위자로서 대학생 대출자들이 어떻게 노동시장으로 이행하는지에 대한 실태를 분석하고자 한다. 대출자와 비대출자의 노동시장 이행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학자금 대출이 학생들의 노동시장 성과에 영향을 주는지를 탐색하고자 한다. 이는 학자금대출정책의 효과를 측정하는 데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본다.

## II. 선행연구분석

학자금 대출제도<sup>4)</sup>에 관한 학술적 연구는 정책적 관심에 비하여 양적으로 적은 편이다(김지

3) 2010년 기준 도시가구 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이 약 360만 원임을 감안할 때, 평균 등록금 부담률은 연간 소득의 1/4 수준으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김상희, 2010).

4) 학자금 지원제도는 학자금 용자와 국가의 무상보조제도를 합한 것이며 학자금 용자제도는 학생들이 미래에 상

하외, 2009). 또한 대부분의 연구가 학자금 용자제도(정책)의 실태와 발전 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다(김안나 외, 2008b; 남수경, 2008, 2010; 하연섭 외, 2008, 2009). 또한 학자금대출제도의 국제비교 분석 연구(오세안, 2010) 역시 우리나라 학자금 지원제도의 발전방안을 제시하고 있어 이 역시 제도적 분석연구에 속한다 할 것이다. 김지하·이병식(2009)의 연구는 학자금 대출 수요자의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학자금 대출제도가 제대로 현장에 적용되고 있는지를 수요자의 관점에서 수행한 최초의 연구이다. 김지하·이병식(2009)는 학자금지원제도가 효과적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집행과정 측면에서 학자금대출이 어떤 집단의 학생들에게 제공되고 있는지에 대한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학자금대출 수요자의 특성에 대한 분석은 학자금대출제도가 원래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근거를 제공하는 기능을 한다고 말한다. 한국교육고용패널 3, 4 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학자금대출 수요자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저소득계층 학생들의 학자금대출에 대한 수요가 다른 소득계층에 비해서 더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결론적으로 학자금대출이 고소득층을 제외한 중·저소득층 가정에서 대학등록금 마련을 위한 지원방안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학자금대출이 학생들의 노동시장이행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함으로써 학자금 용자제도의 효과를 밝히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향후 이 분야에 대한 논의를 활성화하는데 처음으로 포문을 여는 역할을 한다고 본다.

### Ⅲ.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2010 한국교육고용패널(Korean Education & Employment Panel: KEEEP)’ 7차 원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한국교육패널의 졸업자 대상 설문지는 ‘현재 취업상태, 현 일자리의 특성, 종사상의 지위, 교육훈련, 취업의사 및 준비, 일반적 특성’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졸업생중 학자금 대출자와 미대출자의 노동시장에서의 이행 분석을 위해 경제활동 현황, 종사상의 지위, 임금, 근로시간 등의 설문문항을 활용하였다. 분석 방법으로 기술통계, 상관분석, t-검정, 일원분석분석(ANOVA), 회귀분석 등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한국교육고용패널 7차 자료 중 졸업자 1,705명이다.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성별로는 남성이 947명(55.5%)과 여성이 758명(44.5%)이었다. 대출자는 1,705명중 540명이고 미대출자는 1,165명이다. 대출자 1,705명중에서 남학생은 283명(42.4%), 여학생은 257명(47.6%)이며 미대출자 1,165명중 남학생은 664명(57%), 여학생은 501명(43.0)로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다.

---

환하겠다는 의무를 전제로 학비를 대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장학금과 같은 국가에 의한 무상보조제도와 차이점은 학생들에게 용자금을 상환하게 함으로써 정부의 재정 부담을 덜고 궁극적으로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 준다는데 있다(김안나 외, 2005).

〈표 1〉 분석대상

(단위 : 명, %)

구분		전체	대출여부	
			대출	미대출
전체		1705 (100.0)	540 (100.0)	1165 (100.0)
성별	남자	947 (55.5)	283 (52.4)	664 (57.0)
	여자	758 (44.5)	257 (47.6)	501 (43.0)
학교 유형	2년제	전체	985 (57.8)	691 (59.3)
		남자	508 (29.8)	381 (32.7)
		여자	477 (28.0)	310 (26.6)
	4년제	전체	720 (42.2)	474 (40.7)
		남자	439 (25.7)	283 (24.3)
		여자	281 (16.5)	191 (16.4)

#### Ⅳ. 학자금대출자와 비대출자의 노동시장 이행 분석

##### 1. 경제활동 현황

졸업생 1,705명의 경제활동참가율은 87.3%, 실업률은 5.5%, 고용률은 82.5%로 나타나고 있다. 대출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은 87.96%, 실업률은 5.89%, 고용률은 82.78%, 미대출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은 86.95%, 실업률은 5.33%, 고용률은 82.32%로 나타나고 있다. 대출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미대출자 경제활동참가율보다 1%p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실업률, 고용률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있는 차이가 없다.

성별로는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고용률 모두 1%p 미만의 차이를 보이고 있어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다. 학교유형별로 보면, 2년제 졸업생의 경제활동지표가 좋게 나타나고 있다. 2년제 졸업생의 경제활동참가율은 89.95%, 실업률 5.08%, 고용률 85.38%로, 4년제의 경제활동참가율은 83.61%, 실업률 6.15%, 고용률 78.47%보다 수치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즉 경제활동참가율은 4.57%p 높게, 고용률은 6.91%p 높게, 실업률은 1.07%p 낮게 나타나고 있다.

2년제 졸업생의 학자금 대출자와 비대출자 간의 경제활동 비교는 미대출자가 나아보이기는 하나 그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다. 4년제 졸업생의 경우, 남자의 경우에도 별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는 반면, 4년제 여자 졸업생은 대출자와 미대출자 간에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4년제 여자졸업생의 경우, 대출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은 90%, 미대출자는 78%로서 대출자가

12%p 높게 나타나고 있다. 대출자의 고용률은 83.33%, 미대출자는 72.25% 로서 대출자가 11%p 높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률 역시 카이스퀘어 검정 결과 4년제 여학생들 중에서 대출자와 미대출자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4년제 여학생들의 경우에는 학자금 대출이 노동시장의 이행에 뚜렷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2〉 대출자와 미대출자의 경제활동참여현황 비교

(단위 : 명, %)

구분	전체	전체			대출			미대출			$\chi^2$	유의도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고용률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고용률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고용률				
합계	1705	87.27	5.51	82.46	87.96	5.89	82.78	86.95	5.33	82.32	0.054			
성별	남자	947	87.86	5.65	82.89	86.93	6.10	81.63	88.25	5.46	83.43	0.458		
	여자	758	86.54	5.34	81.93	89.11	5.68	84.05	85.23	5.15	80.84	1.181		
학교 유형	2년제	합계	985	89.95	5.08	85.38	89.12	5.34	84.35	90.30	4.97	85.82	0.354	
		남자	508	90.55	5.87	85.24	89.76	6.14	84.25	90.81	5.78	85.56	0.130	
		여자	477	89.31	4.23	85.53	88.62	4.73	84.43	89.68	3.96	86.13	0.253	
	4년제	합계	720	83.61	6.15	78.47	86.59	6.57	80.89	82.07	5.91	77.22	1.298	
		남자	439	84.74	5.38	80.18	84.62	6.06	79.49	84.81	5.00	80.57	0.074	
		여자	281	81.85	7.39	75.80	90.00	7.41	83.33	78.01	7.38	72.25	4.096	*

주 : \*p<0.1 \*\*p<0.05 \*\*\*p<0.001

4년제를 졸업한 여학생의 경우, 대출자와 미대출자의 노동시장 이행에 뚜렷한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는 남학생과 여학생의 노동시장 이행패턴이 다름에 기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을 찾기 위해 비경제활동인구에 대해 분석해 보았다. 비경제활동 졸업생에게 구직활동을 안하는 이유를 조사한 결과 “취업시험 및 자격시험 준비” 항목에 있어 뚜렷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취업시험 및 자격시험 준비에 있어 4년제를 졸업한 여학생중 대출자는 0%인데 반해 미대출자는 5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러한 수치는 4년제 남자의 평균적인 수치는 15%보다 월등하게 높은 수치로서 최근 여성들의 노동시장의 진출이 남성과 다름을 엿볼 수가 있다. 즉, 경제적인 여유를 갖고 있는 능력 있는 여성들의 경우 더 좋은 직장에 취업하기 위해 취업준비나 시험 준비 등 더 나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준비과정의 투자로 인해 가정이 어려운 애들보다 취업은 늦어질 수는 있으나 더 좋은 직장으로 진출할 가능성은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3〉 구직활동 안하는 이유(졸업생중 비경제활동인구 대상)

(기준 : 명, %)

구분	전체	취업시험 및 자격시험 준비			$\chi^2$	유의도		
		전체	대출	미대출				
전체	155	28.40	24.40	30.00	0.485			
성별	남자	90	20.00	26.70	16.70	1.250		
	여자	65	40.00	20.00	46.00	3.250	*	
학교유형	2년제	전체	67	29.80	28.60	30.40	0.024	
		남자	39	25.60	27.30	25.00	0.021	
		여자	28	35.70	30.00	38.90	0.221	
	4년제	전체	88	27.20	20.80	29.70	0.690	
		남자	51	15.70	26.30	9.40	2.587	
		여자	37	43.20	0.00	50.00	4.405	**

주 : \*p<0.1 \*\*p<0.05 \*\*\*p<0.001

## 2. 졸업 후 일자리 경험

졸업 후 일자리 경험 횟수는 2009년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 1년 동안 일자리 경험횟수를 의미한다. 이 기간 동안 졸업생 1,705명의 평균 일자리 횟수는 1.7개이며 그 가운데 학자금 대출자는 1.76개, 미대출자는 1.67개로 학자금 대출자가 0.1개, 6%정도 일자리 횟수가 많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일자리 경험횟수의 경우, 2년제 남학생에게서 학자금 대출자와 미대출자 간에만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2년제 남학생의 경우, 대출자는 2.35번, 미대출자는 1.94번으로 대출자가 0.4번(17%) 일자리 횟수가 높게 나오고 있다.

〈표 4〉 일자리 경험 횟수

(단위 : 번)

구분	전체		대출		미대출		T	유의도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1.70	1.38	1.76	1.26	1.67	1.44	0.757			
성별	남자	1.92	1.62	2.01	1.46	1.88	1.69	0.686		
	여자	1.28	0.53	1.32	0.56	1.25	0.52	0.892		
학교유형	2년제	전체	1.78	1.18	1.89	1.23	1.73	1.16	1.130	
		남자	2.04	1.35	2.35	1.43	1.94	1.32	1.877	*
		여자	1.29	0.51	1.32	0.52	1.27	0.51	0.431	
	4년제	전체	1.58	1.62	1.62	1.28	1.56	1.81	0.273	
		남자	1.75	1.93	1.73	1.44	1.77	2.24	-0.126	
		여자	1.25	0.57	1.33	0.64	1.22	0.54	0.830	

주 : 일자리 경험횟수는 2009년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의 기간에 해당됨  
보정패널은 대학 졸업 이후부터 2010년 6월까지 해당

주 : \*p<0.1 \*\*p<0.05 \*\*\*p<0.001

### 3. 취업자의 경제활동 실태

#### 1) 일자리 유형

학자금대출자와 미대출자의 노동시장 이행 성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노동시장에서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노동시장에서 정규직, 고임금, 적정 근로시간, 높은 만족도 등을 보이는 집단이라면 노동시장에서 괜찮은 일자리에 속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4년제 졸업 여자들의 경우, 대출자와 미대출자간의 이행 양상이 다를 수 있었다. 반면 일자리 유형의 경우, 2년제 남학생에게서 대출자와 미대출자의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취업자의 일자리 유형을 보면, 전체 취업자의 94.1%가 임금근로자이며 그 가운데 대출자 96%, 미대출자 93.2%로, 대출자의 임금근로자 비율이 2.8%p 높다. 이는 2년제 남자 졸업생의 취업형태에서 기인됨을 볼 수 있다.

2년제 남자 졸업생의 경우, 자영업 비율을 살펴보면 대출자의 경우는 2%인데 반해 미대출자는 10.2%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4년제 남자 미대출자의 자영업 비율 6.4%보다 3.8%p 높은 수치이다. 2년제 남학생을 대상으로 대출자와 미대출자간에 임금근로자비율을 카이스퀘어 검정을 한 결과를 보면 1%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왜 2년제 남학생들의 대출자와 미대출자간에 일자리 유형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선 앞서 살펴본 졸업 후 일자리 경험회수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일자리 경험횟수의 경우, 2년제 남학생은 1년간(2009년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의 기간) 2.04번을 나타나고 있다. 이는 전체 평균 1.70보다 16%, 4년제 평균 1.58 보다는 22.5% 높은 수치이다. 즉, 2년제 남자 졸업생의 경우, 자의에 의하든 타의에 의하든 일자리 이동성이 크다는 것이며 그만큼 현 직장에서 만족하지 못 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경제적으로 가정이 여유가 있는 경우직장에 취업을 하는 것 보다는 스스로 창업을 하는 자영업 형태의 가능성이 커지는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표 5〉 대출자와 미대출자의 일자리 유형 비교

(단위 : 명, %)

구분	합계				대출				미대출				χ <sup>2</sup>	유의도		
	합계	임금근로자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합계	임금근로자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합계	임금근로자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합계	1341 (100.0)	1262 (94.1)	70 (5.2)	9 (0.7)	425 (100.0)	408 (96.0)	13 (3.1)	4 (0.9)	916 (100.0)	854 (93.2)	57 (6.2)	5 (.5)	0.972			
성별	남자	746 (100.0)	686 (92.0)	54 (7.2)	6 (0.8)	221 (100.0)	210 (95.0)	9 (4.1)	2 (.9)	525 (100.0)	476 (90.7)	45 (8.6)	4 (.8)	0.630		
	여자	595 (100.0)	576 (96.8)	16 (2.7)	3 (0.5)	204 (100.0)	198 (97.1)	4 (2.0)	2 (1.0)	391 (100.0)	378 (96.7)	12 (3.1)	1 (.3)	0.236		
학교 유형	2년제	합계	800 (100.0)	752 (94.0)	41 (5.1)	7 (0.9)	236 (100.0)	230 (97.5)	3 (1.3)	3 (1.3)	564 (100.0)	522 (92.6)	38 (6.7)	4 (.7)	0.826	
		남자	407 (100.0)	370 (90.9)	33 (8.1)	4 (1.0)	102 (100.0)	99 (97.1)	2 (2.0)	1 (1.0)	305 (100.0)	271 (88.9)	31 (10.2)	3 (1.0)	2.242	*
	여자	393 (100.0)	382 (97.2)	8 (2.0)	3 (0.8)	134 (100.0)	131 (97.8)	1 (0.7)	2 (1.5)	259 (100.0)	251 (96.9)	7 (2.7)	1 (.4)	0.434		
	4년제	합계	541 (100.0)	510 (94.3)	29 (5.4)	2 (0.4)	189 (100.0)	178 (94.2)	10 (5.3)	1 (0.5)	352 (100.0)	332 (94.3)	19 (5.4)	1 (.3)	0.420	
남자		339 (100.0)	316 (93.2)	21 (6.2)	2 (0.6)	119 (100.0)	111 (93.3)	7 (5.9)	1 (0.8)	220 (100.0)	205 (93.2)	14 (6.4)	1 (.5)	0.082		
	여자	202 (100.0)	194 (96.0)	8 (4.0)	0 (0.0)	70 (100.0)	67 (95.7)	3 (4.3)	0 (0.0)	132 (100.0)	127 (96.2)	5 (3.8)	0 (.0)	1.810		

주 : \*p<0.1 \*\*p<0.05 \*\*\*p<0.001

### 2) 임금근로자의 종사상의 지위

전체 임금근로자의 종사상의 지위를 살펴보면 임금근로자 1,262명중 정규직 984명(78%)으로, 비정규직 278명(22%)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대출자들은 정규직 74%로 미대출자의 정규직 비율 79.9% 보다 5.9%p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2년제 여자 졸업생과 4년제 남자 졸업생에게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2년제 여자 졸업생들 중 대출자의 정규직 비율(71.8%)은 미대출자의 비중(80.1%)보다 8.3%p 낮게 나타나고 있다. 4년제 남자 졸업생들 중 대출자의 정규직 비율(75.7%)은 미대출자의 비중(85.9%)보다 10.2%p 낮게 나타나고 있다. 결론적으로 대출자의 경우 미대출자보다 정규직으로 이행 가능성이 낮다고 볼 수 있다.

〈표 6〉 임금근로자 종사상의 지위

(기준 : 명, %)

구분	전체			대출			미대출			x <sup>2</sup>	유의도		
	전체	정규직	비정규직	전체	정규직	비정규직	전체	정규직	비정규직				
성별	전체	1262 (100.0)	984 (78.0)	278 (22.0)	408 (100.0)	302 (74.0)	106 (26.0)	854 (100.0)	682 (79.9)	172 (20.1)	5.482	**	
	남자	686 (100.0)	560 (81.6)	126 (18.4)	210 (100.0)	163 (77.6)	47 (22.4)	476 (100.0)	397 (83.4)	79 (16.6)	3.252	*	
	여자	576 (100.0)	424 (73.6)	152 (26.4)	198 (100.0)	139 (70.2)	59 (29.8)	378 (100.0)	285 (75.4)	93 (24.6)	1.805		
학교유형	2년제	전체	752 (100.0)	595 (79.1)	157 (20.9)	230 (100.0)	173 (75.2)	57 (24.8)	522 (100.0)	422 (80.8)	100 (19.2)	3.059	*
		남자	370 (100.0)	300 (81.1)	70 (18.9)	99 (100.0)	79 (79.8)	20 (20.2)	271 (100.0)	221 (81.5)	50 (18.5)	0.145	
		여자	382 (100.0)	295 (77.2)	87 (22.8)	131 (100.0)	94 (71.8)	37 (28.2)	251 (100.0)	201 (80.1)	50 (19.9)	3.391	*
	4년제	전체	510 (100.0)	389 (76.3)	121 (23.7)	178 (100.0)	129 (72.5)	49 (27.5)	332 (100.0)	260 (78.3)	72 (21.7)	2.185	
		남자	316 (100.0)	260 (82.3)	56 (17.7)	111 (100.0)	84 (75.7)	27 (24.3)	205 (100.0)	176 (85.9)	29 (14.1)	5.116	**
		여자	194 (100.0)	129 (66.5)	65 (33.5)	67 (100.0)	45 (67.2)	22 (32.8)	127 (100.0)	84 (66.1)	43 (33.9)	0.021	

주 : \*p<0.1 \*\*p<0.05 \*\*\*p<0.001

### 3) 월 평균 급여

취업자의 월평균 급여를 보면, 대출자가 169만원, 미대출자가 179만원으로 미대출자가 10만원 정도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차이는 남자 졸업생에게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앞에서의 결과,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비교에 있어 대출자와 미대출자 차이가 남자 변인에서 유의한 결과를 지지하고 있다고 있으며 그 차이만큼 급여에도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인다.



〈표 7〉 학자금 대출자와 미대출자의 월 평균 급여 비교

(기준 : 만원)

구분	전체		대출		미대출		T-test	유의도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176.00	72.09	169.26	68.57	179.19	73.53	-2.185	**		
성별	남자	200.83	73.94	190.76	72.58	205.32	74.19	-2.306	**	
	여자	145.07	56.06	144.78	54.34	145.21	56.99	-0.082		
학교유형	2년제	전체	167.86	69.11	159.27	64.33	171.58	70.82	-2.136	**
		남자	192.07	71.01	180.69	71.56	196.18	70.51	-1.789	*
		여자	143.15	57.50	142.17	52.23	143.66	60.13	-0.224	
	4년제	전체	187.67	74.71	181.67	71.78	190.89	76.15	-1.280	
		남자	210.98	76.07	199.40	72.67	217.44	77.33	-1.966	*
		여자	148.71	53.19	149.83	58.32	148.14	50.69	0.198	

주 : \*p<0.1 \*\*p<0.05 \*\*\*p<0.001

주 : 임금근로자 월평균 소득

#### 4) 주당 평균 근로시간

취업자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을 보면, 대출자가 48.9시간, 미대출자가 49.4으로 미대출자가 0.5시간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유의하지는 않다. 주당 평균시간의 경우 성별, 학교유형별 모두 대출자와 미대출자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 그러나 미대출자의 경우 평균근로시간이 조금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8〉 학자금 대출자와 미대출자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 비교(성별/학교유형별)

(단위 : 시간)

구분	전체		대출		미대출		T-test	유의도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49.32	11.16	48.99	12.04	49.47	10.72	-0.703			
성별	남자	50.51	11.68	50.05	12.64	50.72	11.24	-0.681		
	여자	47.90	10.34	47.88	11.29	47.91	9.83	-0.031		
학교유형	2년제	전체	50.07	11.24	50.06	11.87	50.08	10.97	-0.014	
		남자	51.30	11.77	51.68	11.76	51.16	11.79	0.365	
		여자	48.91	10.60	48.90	11.86	48.92	9.91	-0.017	
	4년제	전체	48.22	10.96	47.63	12.15	48.53	10.27	-0.880	
		남자	49.62	11.53	48.67	13.24	50.13	10.49	-1.078	
		여자	45.92	9.53	45.86	9.85	45.96	9.40	-0.065	

주 : \*p<0.1 \*\*p<0.05 \*\*\*p<0.001

주 : 임금근로자만 해당

#### 5) 만족도

취업자의 직장 만족도를 보면, 대출자가 3.32, 미대출자가 3.37으로 대출자가 0.07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유의한 수준은 아니다. 남녀와 2년제, 4년제 모두에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표 9〉 만족도

(단위 : 점)

구분	전체		대출		미대출		T-test	유의도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3.36	0.83	3.32	0.84	3.37	0.82	-1.127			
성별	남자	3.42	0.84	3.41	0.85	3.43	0.83	-0.244		
	여자	3.28	0.81	3.22	0.82	3.31	0.80	-1.234		
학교 유형	2년제	전체	3.33	0.82	3.27	0.83	3.35	0.82	-1.234	
		남자	3.41	0.85	3.38	0.85	3.42	0.85	-0.368	
		여자	3.25	0.79	3.19	0.80	3.28	0.78	-1.081	
	4년제	전체	3.40	0.83	3.38	0.86	3.41	0.82	-0.392	
		남자	3.43	0.82	3.43	0.86	3.43	0.81	-0.018	
		여자	3.34	0.84	3.28	0.85	3.36	0.83	-0.621	

주 : 취업자(임금근로자)에만 해당 사항

주 : \*p<0.1 \*\*p<0.05 \*\*\*p<0.001

#### 4. 졸업생 경제활동참여와 취업의 질 결정요인 분석

지금까지 학자금대출자와 미대출자의 노동시장 이행 실태를 분석하였다. 대출여부에 따라 노동시장에서의 경제활동 참여, 종사상 지위, 임금, 근로시간 등이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경제활동참여, 일자리 유형, 종사상 지위 등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 차이를 직접적인 대출의 영향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요컨대 노동시장이행에서의 차이가 대출여부 보다는 대출자들의 개인적인 배경들이 노동시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가능성이 더 클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질문을 해결하기 위해, 취업 여부에 대한 개인의 환경적인 변수를 통제 했을 때, 과연 대출이 취업여부에 영향력이 있는지를 회귀분석방법을 통해 살펴보았다. 종속변수는 현재 취업여부와 정규직 여부이며, 설명변수는 KEEP 조사의 패널 자료에서 측정할 수 있는 변수들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sup>5)</sup> 변수들은 크게 개인 배경, 학부 경험, 교육 훈련으로 범주화하여 각각의 변수들을 포함하여 <표 10>과 같이 제시하였다.

5) 개인배경의 하나인 부모의 경제적 지위를 볼 수 있는 자산, 소득등의 자료가 없어 분석에 활용하지 못한 한계가 있음.

〈표 10〉 변수설명

구분	변수명	설문문항	비고
개인 배경	취업여부		취업자=1, 미취업자=0
	성별	GENDER	남자=1, 여자=0
	학교유형	F6Y02001 F6Y16002	2년제=1, 4년제=0
	학점	F6Y02087 F6Y16044	졸업 평점을 (평점/만점)*100로 환산
	대출여부	F6Y02080 F6Y16041	대학 재학 중 등록금 납부를 위해 학자금 대출을 받은 경험 (대출=1, 미대출=0)
	대출총액	F6Y02083 F6Y16042	학자금 대출 총액(만원)
학부경험	교내 아르바이트 경험	F6Y02014 F6Y16037	교내 아르바이트(조교, 근로장학생, 교내 프로젝트 참여 등) 경험 (예=1, 아니오=0)
	현장실습(또는 인턴십) 경험	F6Y02061 F6Y16039	일정기간 기업(공공기관 등 포함)에서 근무를 통한 현장실무 경험 (예=1, 아니오=0)
취업준비	영어공부경험	F6Y10001	영어 공부 경험 유무 (예=1, 아니오=0)
	공무원시험준비경험	F6Y10032	공무원시험 준비 경험 유무 (예=1, 아니오=0)
	교육훈련경험	F6Y10047	취업이나 창업, 직무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을 받은 경험 (예=1, 아니오=0)
	자격증유무	F6Y10097	취득한 자격증 유무 (예=1, 아니오=0)

〈표 11〉은 변수들의 기술 통계값을 나타낸다. 〈표 11〉에서 알 수 있듯이 대학 졸업자 중 취업자가 82%인 것을 알 수 있다. 성별로는 56%가 남자, 44%가 여자이고 학교유형별로는 2년제와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은 각각 58%, 42%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재학 중 학점은 평점을 100점으로 환산하였을 때 평균 79점 정도이었으며, 학자금 대출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가 32%이며 학자금 대출 총액은 평균 253만원이다.

학교 생활과 관련된 변수를 살펴보면 재학 중 교내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경우, 현장실습(또는 인턴십) 경험이 있는 경우가 각각 21%, 50% 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훈련을 나타내는 변수를 살펴보면 영어 공부 경험이 있는 경우는 30%, 공무원 시험 준비한 경험이 있는 경우는 5%, 취업이나 창업, 직무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경험이 있는 경우는 11%,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는 13%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 변수에 대한 기술 통계량

구분	변수명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종속변수	취업 여부	0.82	0.38	0	1
	정규직 여부	0.78	0.41	0	1
개인 배경	성별	0.56	0.5	0	1
	학교유형	0.58	0.49	0	1
	학점	78.99	12.13	3.61	100
	대출여부	0.32	0.47	0	1
	대출총액(만원)	253.17	532.97	0	4,000
학교 생활	교내 아르바이트 경험	0.21	0.41	0	1
	현장실습(또는 인턴십) 경험	0.5	0.5	0	1
교육 훈련	영어공부경험	0.3	0.46	0	1
	공무원시험준비경험	0.05	0.23	0	1
	교육훈련경험	0.11	0.31	0	1
	자격증유무	0.13	0.34	0	1

〈표 12〉는 취업여부의 종속변수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이다. 〈모형 1〉은 기본적인 학교생활 정보를 통제 했을 때의 대출 여부와 대출금의 크기가 취업여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모형이다. 〈모형 2〉는 학교생활 통제변인에 교내 아르바이트 경험과 현장실습 경험을 추가한 모형이다. 교내 아르바이트 경험과 현장실습 경험은 취업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하였다. 〈모형 3〉은 취업준비에 대한 변인을 추가하였다. 영어공부 여부, 공무원시험 여부, 자격증 유무, 교육훈련 유무 등을 추가하였다. 3개의 모형 모두, 모형 자체는 유의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개인의 속성을 나타내는 통제변인들을 넣을 때는 대출변인은 모든 모형에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결론적으로 대출 요인이 노동시장 이행에 영향을 준다고 결론짓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표 12〉 취업자 회귀분석 결과

	모형1		모형2		모형3	
대출	-0.031		-0.030		-0.027	
log(대출 총액)	0.007		0.007		0.007	
남자	0.017		0.038	*	0.041	
2년제	0.068	***	0.062	***	0.029	*
학점	0.000		0.000		0.000	
교내아르바이트 경험유무			-0.005		-0.004	
현장실습 경험유무			0.025	*	0.023	*
영어공부 여부					-0.088	***
공무원시험 여부					-0.258	***
자격증 유무					0.013	
교육훈련 유무					0.050	*
상수	0.800	***	0.749	***	0.795	***
$Adj - R^2$	0.007**		0.010**		0.046***	
$N$	1705					

\*p<0.1 \*\*p<0.05 \*\*\*p<0.001

다음 <표 13> 은 임금근로자들에 대해 정규직여부의 종속변수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이다. <모형 4>은 기본적인 학교생활정보를 통제 했을 때의 대출 여부와 대출금의 크기가 취업자중에서 정규직여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모형이다. <모형 5>는 <모형 2>와 같이 학교생활 통제변인에 교내 아르바이트 경험과 현장실습 경험을 추가한 모형이다. <모형 6>은 <모형 3>과 같이 취업준비에 대한 변인을 추가하였다. 임금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정규직 여부에 대한 분석에 있어서도 앞에서의 취업 여부 분석과 같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 3개의 모형 모두, 모형 자체는 유의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개인의 속성을 나타내는 통제변인들을 넣을 때는 대출변인은 모든 모형에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결론적으로 대출 요인이 졸업후 노동시장에서 경제활동 참여와 참여의 질적 수준에 영향을 준다고 결론짓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표 12>과 <표 13>의 결과를 비교했을 때 논의에서 벗어나지만 재미있는 현상을 보면 전체 졸업생을 대상으로 취업 여부를 분석했을 때는 2년제가 유의(<표 12>)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에 반해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정규직 여부를 분석했을 때에는 남자와 학점 변인이 유의(<표 13>)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청년 노동시장 이행 패턴에 있어서 2년제 학생들이 노동시장 참여가 활발해 보일지라도 취업에 질에 있어서는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존재함을 시사하고 있다.

**<표 13> 정규직 회귀분석 결과**

	모형4		모형5		모형6	
대출	-0.055		-0.054		-0.056	
log(대출 총액)	0.000		0.000		0.000	
남자	0.084	***	0.170	***	0.159	***
2년제	0.030		0.019		-0.005	
학점	0.000	**	0.000	*	0.000	*
교내아르바이트 경험유무			-0.020	***	-0.0017	***
현장실습 경험유무			0.047	**	0.0467	**
영어공부 여부					-0.061	*
공무원시험 여부					-0.189	**
자격증 유무					-0.110	**
교육훈련 유무					0.025	
상수	0.777	***	0.643	***	0.051	***
$Adj - R^2$	0.014***		0.035***		0.051***	
$N$			987			

\*p<0.1 \*\*p<0.05 \*\*\*p<0.001

## V. 결론 및 시사점

본고에서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한국교육고용패널(Korean Education & Employment Panel: KEEP)’ 7차 원자료를 이용하여, 졸업생중 대출자와 미대출자의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을

분석하였다. 지금까지 학자금 대출에 대한 연구들이 대부분 제도적 접근을 취했다면, 이 논문은 실제 제도를 이용하는 수요자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고 볼 수 있다. 과연 이 학자금 대출 여부가 노동시장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자 시도하였다. 학자금대출자와 미대출자의 노동시장 이행 실태를 비교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하였다.

첫째, 대출자와 미대출자 간에 가장 뚜렷한 차이는 4년제 여자 졸업생의 경제활동 참여에서 나타난다. 4년제 여자졸업생의 경우, 대출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은 90%, 미대출자는 78%로서, 대출자가 12%p 높게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높다는 것이 반드시 노동시장의 이행의 성과로 단정 짓기는 어렵다는 점이다. 대출을 받은 여학생의 경우, 경제적인 요인으로 ‘돈을 벌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경제활동을 시작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이는 비교적 경제적 여유가 있는 4년제 여자 졸업생들이 “취업시험 및 자격시험 준비” 등으로 경제활동 참여를 연장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다. 경제적인 여유를 갖고 있는 여학생의 경우 더 좋은 직장에 취업하기 위해 취업준비나 시험 준비 등을 통해 노동시장 참여를 유보하는 경우가 많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취업유형의 경우, 2년제 남학생에게서 대출자와 미대출자 간 다른 양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년제 남자 졸업생의 경우, 자영업 비율을 살펴보면 대출자의 경우는 2%인데 반해 미대출자는 10.2%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4년제 남자 미대출자의 자영업 비율 6.4%보다 3.8%p 높은 수치이다. 이는 졸업 후 취업시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경우, 직장에 취업 하는 것 보다는 스스로 창업을 하는 자영업 형태의 가능성이 크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2년제 남학생의 경우 상대적으로 취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직장을 포기하고 자영업으로 이행하는 선택을 할 경우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셋째, 학자금 대출자와 미대출자가 노동시장이행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은 이들의 종사상 지위이다. 대출자들은 정규직 74%로 미대출자의 정규직 비율 79.9% 보다 5.9%p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유의한 차이에 해당한다. 특히 2년제 여자 졸업생들 중 대출자의 정규직 비율(71.8%)은 미대출자의 비중(80.1%)보다 8.3%p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4년제 남자 졸업생들 중 대출자의 정규직 비율(75.7%)은 미대출자의 비중(85.9%)보다 10.2%p 낮게 나타나고 있다. 대출을 받은 학생들의 경우, 가정의 경제적 배경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을 것이며 이는 다시 노동시장에서의 종사상의 지위를 결정지을 가능성이 큼을 시사하고 있다.

넷째, 학자금 대출 요인이 취업여부를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대출여부보다는 대출자의 통제되지 않는 개인적 특성, 부모의 경제적 지위 등이 노동시장 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클 수 있다.

학자금 대출제도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교육기회의 형평성에 기여하는 제도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학자금 대출의 긍정적인 측면을 인정한다고 해도, 대출을 받은 학생들이 학교공부에 전념할 수 없고 졸업 후 노동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한(비정규직, 저임금, 장시간 근로)등의 환경에 직면하는 경우가 높다면, 학자금 대출이 학생들에게 응원이 아니라 삶의 질곡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학자금대출제도의 정교한 설계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에게는 학자금대출보다는 장학금 제도의 확충이 더욱 필요하다고 본다.

❖ 참고문헌 ❖

- 남수경·류기운(2007). 「대학생 학자금 및 장학금 통합방안에 관한 연구: 국가장학재단 설립을 중심으로」. 교육인적자원부.
- 남수경(2008). “대학생 학자금지원정책에 대한 진단과 재설계 방안”. 『교육재정경제연구』, 17(1): 293-317.
- 남수경(2010), 국가장학사업 통합방안 및 발전계획, 한국장학재단
- 김상희, 『이명박정부의 등록금 정책 진단』, 2010,
- 김안나·이영·이중희·채재은(2004). 「인적자원투자 촉진을 위한 대학(원)생 학자금 용자제도 활성화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 김안나외(2005) 대학 학자금 용자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신용보증 및 유동화 방식의 정책효과 분석, 한국교육, Vol. 32. No. 1. pp. 123~143.
- 김안나·이병식(2008b). “학자금대출이 대학재학기간 연장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 소득계층별 분석” 『교육사회학연구』, 18(4).
- 김지하, 이병식(2009). “대학생 학자금대출 수요집단의 특성 분석”. 『교육재정경제연구』, 18(1)
- 김상희, 『이명박정부의 등록금 정책 진단』, 2010,
- 반상진(2011). ‘대학등록금정책, 이제는 국가가 적극 나서야 할 때다’, 교육비평 제29호.
- 오세안(2010), 대학 학자금 용자제도의 국제비교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채재은 (2005). “OECD 주요국의 대학 학자금 지원제도 비교 분석 연구”. 『비교교육연구』, 15(1), 143-166.
- 하연섭 외(2008), 국가장학재단 설립 및 소득연계 학자금 대출제도 도입 방안 연구, 교육과학기술부
- 하연섭 외(2009), 한국형 소득연계 학자금 대출 제도 도입 방안 연구, 교육과학기술부

## ❖ Abstract ❖

### Study on school to work transition of college graduates who applied for a student loan

Song Chang-Yong, Son You-mi(KRIVET)

In this study, school to work transition of college graduates who applied for a student loan is analyzed by using the 7th KEEP data. Until now, studies about student loan took institutional approaches. However, this study tried to analyze whether the success of labour market is affected by student loan or not, from the customers' prospective.

First, the comparative analysis of borrowers and non-borrowers shows meaningful result that the borrowers participate more in the economic activity, especially in the four-year-course female graduates. Because female graduates who have better financial background are tend to postpone their economic activity participation for the better job through the preparation of exams, studies or interviews.

Second, two-year course male graduates who have economic strength are tend to choose self-employed if it is hard to find a job.

Third, the result shows that the borrowers probably have low financial background and the fact would decide the status of workers in the labour market.

Finally, student loan factor could explain some parts whether the borrowers employed or not. Instead, other factors have direct effect to work transition, like borrowers' uncontrollable private factors or the economic status of their parents.

**Key words:** keep, school to work transition, student loan, success of labour market